

“자본은 독점되어 있지 않다”

장상환 교수의 재반론을 다시 반박함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사회주의와 복지국가의 몰락을 목격하고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을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들이 만들어낸 이념과 체제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는지 장상환 교수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반론을 보면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는 시저의 명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글과 말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식인일수록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저것을 균형있게 직시해야 한다. 이것이 지식인들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케인즈 이론은 단기적 해결책

첫째, 장교수는 “한국은 이제 케인즈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세상을 거꾸로 걸어가는 이야기이다.

사회주의의 등장이 20세기가 겪었던 매우 불행한 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케인즈주의의 등장도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었다. 케인즈 이론은 단기적 처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인 해결책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아떨어져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돈을 땅에 묻었다 파냈다 하는 식의 일을 시키고 돈을 풀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장교수가 신자유주의(필자의 학문적 신념과 비슷함)라고 부르는 학문사조가 다시 되살아난 것은 케인즈식의 정부개입정책과 거대정부가 가져온 부작용 때문이었다.

흔히 케인즈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고만다”는 케인즈의 명언을 자주 인용한다. 다행히 케인즈주의와 강력한 정부개입을 선택한 첫세대는 그 단기적 효과를 모두 빼먹고 죽었다. 그러나 이후 '장기'에 걸쳐 살아가는 그 후손들은 그들이 먹고 간 후유증인 고물가와 고실업이라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오늘도 허덕이

고 있다. 이것이 케인즈형 복지국가를 택했던 서구 유럽 국가들이 앓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다.

둘째, 장교수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무한경쟁논리에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자본축적의 위기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계급과 제3세계의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선진국 자본의 음모”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신자유주의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사회현상을 강자와 약자,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계급으로 나누고 이들 사이의 갈등관계로 파악하는 좌파지식인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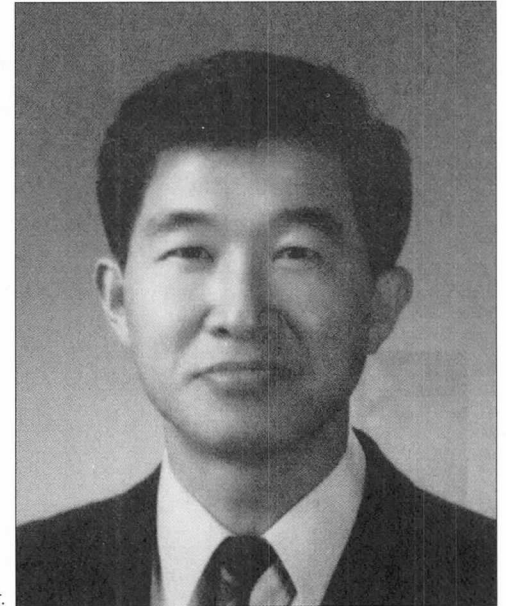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장 대신에 정부가 깊숙이 간여하는 복지국가를 반드시 해체하고 정부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 체제를 갖고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9년 영국의 대처총상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할 당시, 어디에도 자본가나 선진국의 음모는 없었다.

당시 그가 정부개입을 줄이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작은 정부를 실천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 자본축적과 노동생산성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본축적이 많아지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 노동생산성이 오르면 임금이 더붙어 올라가게 된다.

왜 오늘날 연변의 조선족들이 기를 써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장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곳의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자본축적량이 크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높다. 때문에 그들은 한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임금 수준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노동조합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자본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강제적 단체교섭과 같은 행위를 통한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는 단기적으로 노동자의 몫을 늘리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수익률이 떨어져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생산성도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임금도 떨어지게 된다.

“그의 반론을 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는 시저의 명언을 떠올린다. 글과 말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식인일수록 외면하고 싶은 현실도 균형 있게 직시해야 한다. 이는 지식인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공병호 소장.

보다 과감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 자본가의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함이라는 장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편견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이다. 영국의 대처 개혁이나 뉴질랜드의 더글라스 개혁 등이 이를 충분히 입증해주고 남는다.

부의 격차는 들고 도는 회전문

셋째, 장교수는 ‘독점자본’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언어는 한 인간의 사유체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자본은 독점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자본의 소유자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교수는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약자인 노동자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의 자본주의에서 견딜 수 있는가”라는 다소 감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인간의 심성 깊숙이 뿌리를 내린 원시본능, 즉 단결심에 호소하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면에서 냉철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보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것은 좋다. 이것을 필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합쳐진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실을 문제삼고 싶다. 파업이나 태업은 가장 중요한 폭력수단 가운데 하나이

다. 달리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소유의 작업을 불법점유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단결된 행위는 근무시간 외에,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다섯째, 장교수는 “노동조합은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 노동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논리로 노동조합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다. 그것이 옳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나라가 하더라도 우리는 고쳐야 한다. 최근 노동조합법을 노동계약법으로 대체하여 노동시장에서 계약의 원칙을 재생시킨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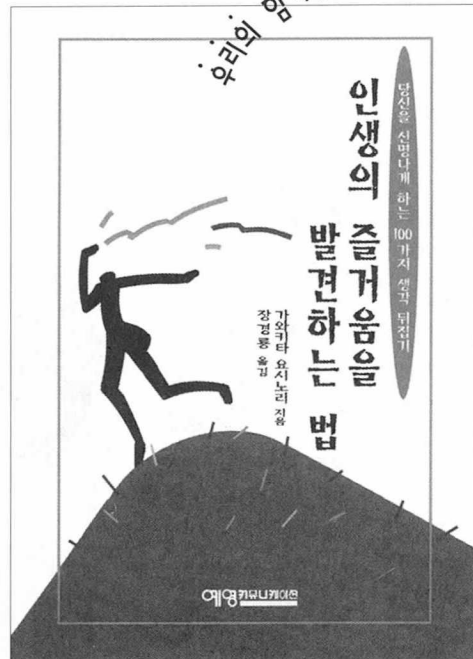
여섯째, 장교수는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로 “독과점자는 보통 이상의 독점이윤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배분을 하지 않는다”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그런데 시장을 평정하여 독점적 지위를 얻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독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상품을 단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든 간에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게 마련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정부가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진 입을 막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독점일 뿐이다.

장교수도 한 산업내 기업의 수를 갖고 독

가정의 달에 추천하는
예영커뮤니케이션의 책들

우리의 힘겨운 가장들을 위한 책!



당신을 신명나게 하는
100가지 생각 뒤집기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
가와카타 요시노리 지음
장경룡 윤희/4·6판(양장)/
328면/7,500원

누구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누리는 비결을 터득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삶의 곳곳에 숨어 있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주옥 같은 인생의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과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맥주시장에서 조선맥주와 동양맥주가 전개하는 치열한 판매전을 보라. 게다가 산업을 따지는 방식도 문제다. 맥주는 맥주 뿐만 아니라 소주·양주·막걸리 등 다른 술들과도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심심찮게 현실과 맞지 않는 주류경제학 교과서 내용을 스테레오타입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일곱째, 장교수는 "시장경제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여 소득분배의 불균형 현상을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장교수는 그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최소한 빈익빈이란 말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제 웬만한 집에는 모두 자가용을 갖고 있다. 얼마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것이 정부가 개입한 재분배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장경제 속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익빈이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시장경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의 격차는 들고 도는 회전문과 같은 것이다. 격차가 벌어지는 것만큼 상승이동하는 사람도 생겨나지만 추락할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 사전적으로 누구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개입을 통해서 사회를 경직화시키고 상승이동 가능성을 줄였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하여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들의 교훈이다.

수렴할 수 없는 세계관의 갈등

여덟째, 장교수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며, 뉴딜정책이 그 구원책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대공황은 정부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두었다면 약간의 경기변동을 보이다가 안정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정부의 개입으로 공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이다. 이를 두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대공황은 민간기업의 실패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초부터 정부의 책임영역이었던 분야에서 정부가 범한 잘못에서 생긴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방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홉째, 장교수는 "한보부도사태는 재벌의 자본축적 형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여기에다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미 확고한 경제력을 확보한 재벌에게 유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한보사태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은행업무에 개입한 결과이다. 사적 소유권이 확립된 진정한 의미의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이 존재했다면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결책은 현재의 관치금융체제가 아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장교수의 주장처럼 현명한 정부개입이 아니라 한사라도 빨리 은행에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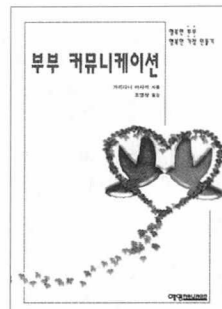
열번째, 장교수는 "전세계 기업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업종전문화와 소유경영분리 주장을 펴는 것은 재벌체제의 변호론"이라는 주장을 편다.

업종전문화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기업들이 경제환경에 맞추어서 선택할 일이지 지식인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선택이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다는 장교수의 주장은 마치 시험의 모범답안처럼 기업의 선택도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기업의 선택에는 모범답안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업종전문화의 정당성 여부는 논쟁을 거쳐 정리된 지 오래되며, 추진 부처도 이 정책을 몇 년간 끝다가 포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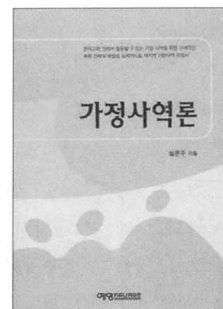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장교수와 필자 사이에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인간관의 차이가 결국 수렴할 수 없는 세계관의 갈등을 낳게 되었다. 아무튼 격조 있는 논쟁을 계속해서 기대한다. ❖

고침

지난호(제212호) 특집 앙케트 기사 중 등화기술 출판사의 '정우영' 대표는 '정우용'으로 바로잡습니다. 같은 호 '채책 속으로' (32면)의 《조선시대 인물의 재발견》은 '집문당'이 아닌 '일조각' 발행으로 바로잡습니다.



부부 커뮤니케이션
가까다니 마사키 지음/
조영상 옮김/신국판/3,800원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부가 알아야 할 성경적 가르침이 담겨있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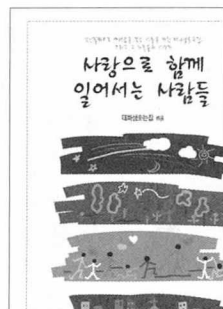
가정사역론
살은주 지음/신국판/588면/
13,000원
가정파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 속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
장영복 외 지음/신국판/
352쪽/7,700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하는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고통과 위험을 짚어 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마음을 앓는 사람들
이시기와 노보요시 지음/노영근·
노혜련 옮김/신국판/248쪽/5,500원
정신병에 관해 무지, 편견 내지 무관심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사랑으로 함께...
태화샘솟는집 위임/신국판/
235쪽/6,000원
정신장애인과 가족, 사회복지사, 관련전문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이 직접 쓴 감동적 이야기.



꼭꼭 숨어라
김승태 외 글/김경숙·강민주
그림/타블로이드판/8,000원
유아기의 아이들이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림 찾기를 하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엮여졌다.

예영커뮤니케이션

110-616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661
출판부 T.267-0161~4 F.267-0165 출판유통사업부 T.325-7971